

4차 기반 뉴콘텐츠 제작 기업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3일까지... 뉴콘텐츠 제작·콘텐츠스토리 기획·홍보마케팅 전시 분야

전주시가 가상·증강현실(VR·AR)과 미디어파사드, 디지털사이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인 '꿈남문, 빛의 옷을 입다'와 증강현실(AR) 게임 '왕의 보물을 찾아서', 워터스크린을 활용한 인터랙션 기반 뮤지컬 '실록을 탐하다', 드론축구공 기반 융합 예술 공연인 '드론버스킹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신기술 기반 장르융합 콘텐츠인 4차 산업혁명 기반 뉴콘텐츠 확산 기반 마련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뉴콘텐츠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뉴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스토리 기획 지원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시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뉴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의 총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오는 23일까지 전주지역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탄탄한 스토리 발굴을 위해 신기술 지원의 경우 전주의 전통문화와 실감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해 최



“마을의 풍요 기원합니다”

혁신골 당산대보를 문화축제가 지난 2일 전주시 서서학동 혁신골 만남의 광장에서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실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풍요한 안녕을 기원하며 당산터 지신밧기를 하고 있다.

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자유 과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 장르 대상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총 3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1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탄탄한 스토리 발굴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콘텐츠스토리 기획 지원 사업'은 지역특화 기반의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스토리 발굴을 위한 J-스토리랩 운영과 스토리 전문가 풀 구축을 통한 콘텐츠 개발 기업 스토리 자문 지원으로 3월 중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끝으로 진흥원은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시 지원 사업을 통해 전주지역 콘텐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달 중 2

개사를 모집해 해외 전시 참가 부스 설치와 전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오는 8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18 넥스트 콘텐츠 페어'의 전시 공동관에 참가할 3개 업체를 모집할 방침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나 전화(063-281-4135)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고·고·당 운동교실’ 운영

전주시보건소, 5일부터 4주간

전주시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질환자들의 적절한 자가 관리를 위해 '고·고·당(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운동 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는 올해 총 4회기에 걸쳐 고·고·당 운동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1회기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4주간 진행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질환자, 대사증후군 진단자(복부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당 중 3가지 이상이 정상범위를 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고·당 운동 교실을 통해 개인 및 단체 운동 요법을 제공,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 인자이자 악화 요인인 과체중과 운동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1개월 이상의 집단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281-6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건설자재 훔쳐 판 50대 구속영장 신청

고물업자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쳐 판 50대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인주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정모(51)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10일 완주군 소양면의 한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A(63)씨의 1억30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야적장 인근을 돌아다니며 건설자재를 몰래 팔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이 건설업자인 것처럼 꾸며 고철업자에게 3500만원에 자재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후배 여자친구 감금한 20대 입건

미성년자인 후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완산경찰서는 2일 감금과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전모(22)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일 오후8시5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주택에서 후배

A(19)군과 후배 여자친구 B(17)양을 데리고 술을 마시던 중 B양이 집박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겁이 질린 B양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B양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민 기자

모텔·병원 방화 30대 지적장애인 붙잡혀

익산에서 모텔과 병원을 돌아다니며ライター로 불을 지른 30대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4)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모텔 주차장에 있던 블라인드를ライター로 태우고 인근의 한 병원 주차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병원 침문과 주차단 차량 2대가 불에 탔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모텔에서 지내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200가구 개보수 사업 착수

전주시에 올해 저소득계층 200여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준다.

시는 올해 총 5억원을 투입해 '2018년도 저소득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개·보수 신청을 접수한 280여 가구에 대해 전문인력의 사전 주택조사 진단을 통해 편의시설, 안전과 위생, 생활 불편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중심으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보수 전문인력 12명을 채용한 상태로 지붕·철물 1팀과 도배·장판 2팀으로 나뉘어 오는 5일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홀로거주 어르신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의시설과 주택용 소화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추가 설치해 각종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6곳 운영 개시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료 1회 1000원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봄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는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지난 1월과 2월 추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3월부터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한옥마을 치명자산 임시주차장과 전주향교 앞 전주천 둔치, 르윈호텔 맞은편, 전주자연생태관 입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아래 전주천 둔치 등 총 6곳으로 214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다.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여소 어디서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공영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자전거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1회(1일 대여 시간 내에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 만 14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한 경우에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일몰 시간을 고려해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운영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향후에도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소 운영 관리에 힘쓰는 한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계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치명자산 임시주차장과 한옥마을을 잇는 동선에 자전거 대여소 3곳을 추가 설치하고 자전거도 전주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비치했다. 또 가족과 연인 등이 함께 탈 수 있도록 2인용 자전거도 보강했다.

이호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요소요소에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위치해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